

## 제2절 국외 기술개발 및 연구현황

### 1. 미국(캘리포니아 州)

1970년대는 학교폭력이 미국의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의회로부터 막대한 예산(\$2.4 million)을 받은 전국 교육 협회(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는 1978년 미국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연구를 진행함. 실제로 2005~2006년 간 미국 공립학교의 약 38%가 학교폭력 문제로 경찰수사를 받았고, 2007년 한 해 동안 약 23%의 학생들이 그들 학교의 갱(gang) 단원과 연루되어 있었으며, 약 32%의 학생들이 집단 괴롭힘(bullying)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발표됨. 2009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중 3.8%가 폭력으로 인한 상처로 의사 혹은 간호사의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

미국은 유치원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고, ‘행동’을 연습하는 체험적 교육과정(친구들의 압박에 대한 대응, 분노를 인식하고 비폭력적 대응 등)과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또래중재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 2.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1982년부터 예방교육이 체계화되었으며, 이 때 현재의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OBPP)’이 개발, 실시됨. Olweus의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 OBPP)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 사이의 괴롭힘 문제를 감소시키기, 둘째, 새로운 괴롭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셋째, 학교에서 보다 나은 또래관계 만들기를 목적으로 진행함. 학교/개인/학급/지역사회 등 4가지 구성요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교전체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 3~5년 정도의 기간 동안 꾸준히 진행함. 이 프로그램은 미국 폭력예방 및 연구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우수 프로그램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학생 스스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보면 반사적으로 “스톱”을 합창하게 하며, 학급회의를 수시로 개최함. 2003년부터는 집단따돌림에 대처하기 위한 Zero Program을 통해 학교역량을 제고함. Zero Program은 3~5개 학교로 구성되고 17개월간 진행되는데, Zero Program 내 각 학교에 교장, 담임, 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을 구성하고 세미나를 연 6회 개최함. 세미나는 무관용, 책임과 헌신, 지속적 대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

### 3. 핀란드

2006년부터 끼바 꼬울루(Kiva Koulu) 프로젝트를 운영함. 1, 4, 7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씩 10회 가해·피해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방관자’가 피해자를 돕도록 하는 교육 등을 진행하고, 교사는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문구 조끼를 착용하고, 학부모용 자료를 보급함. 또한 토의, 집단 활동, 역할극 시연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학급당 규칙을 만들고 학년 말에는 규칙을 전부 모아 자치조약에 서명한 후 준수하도록 한다.